

한국음악교육학회 2021 콜로키움 보고서 Colloquium Annual Report 2021

임 은 정*

Eun-Jung Lim

2021년 한국음악교육학회는 ‘음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제15회 콜로키움을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행사는 김미숙 한국음악교육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한국음악교육학회 이사인 윤관기 광주교육대학 교수와 임은정 제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5회 콜로키움은 2020년부터 시작된 전세계의 COVID-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비대면 원격 수업의 실시 상황에서 음악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실재적 음악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소리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교육이 기존의 대면 중심 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적인 변환됨에 따라 대면 교육에서 적용되었던 수업 구성, 수업 매체, 수업 평가, 상호소통 방식 등이 다양한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전환되어 교육현장에 반영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음악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학습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기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성취를 확인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제15회 콜로키움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형태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라인 음악교육 프로그램과 수업 방법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먼저, ‘미래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음악교육의 패러다임-초중등 악기교육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최광훈 꿈의 오케스트라 포항 음악감독이 주제발표를 하고, 최진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음악교육전공 교수

호 중앙대학교 교수와 양소영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주제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최광훈 음악감독은 ‘2021년 경산권 꿈의 오케스트라 비대면 온라인캠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 악기 교육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내용을 요약하자면 경산권 온라인 음악 캠프 운영을 위하여 경산권 전체 7개 기관 즉 7개 권역의 홈페이지를 우선 개발하고, 7개 권역의 메신저 및 1:1 화상채팅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홈페이지 안에 학생들의 개별 음악 테스트 도구를 개발하여 탑재하였으며, 파트별 악기 연주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 92개의 온라인 페이지 및 섹션을 만들었다. 온라인으로 학생들은 온라인 음정 조율장치를 활용하여 음정을 맞추며 온라인 메트로놈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자신들의 연주를 녹음하여 온라인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음악 학습을 위한 연습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악보자료실, 공지사항 페이지 등을 설정하였다.

특히, 온라인으로 실시한 음악캠프 활동은 온라인 1:1 화상 레슨 교육과 반주기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개인 및 합주 연습 실시, 각 악기 파트별 교육영상 자료 제작 및 교재 제공과 음악 이론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퀴즈 쇼 등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이론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활동은 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며, 학습한 내용에 대해 경산권에 있는 참여 학생들이 함께하는 퀴즈를 대회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 퀴즈쇼는 30분간 음악이론 테스트 총 21문항을 테스트에 참여하였으며, 선생님들의 확인 절차를 거쳐 학생들이 개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캠프에서 제시된 5가지 미션을 완료한 학생들에게는 상을 수여하도록 하는 방법 등도 소개되었다.

서울교대 양소영 교수는 이러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비대면이 일상적인 수업이 되는 상황에서 음악수업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반복과 소통을 중심으로 온라인 수업이 한국 과학창의재단에서 요구하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중앙대학교 최진호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사회의 변화를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비대면 코로나 학습 사태를 맞이하여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21 경산권 꿈의 오케스트라 비대면 온라인 캠프’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준 좋은 기회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성공적인 비대면 캠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온라인 랫슨의 약점을 보완하고 둘째, 단순히 박자기를 온라인에서 켜고 연습하는 방식보다는 적극적인 자기주도 학습방안이 필요하며, 셋째, 온라인이지만 연주자들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교육대학원에서 실시간 원격수업의 실제-국악실기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계명대학교 이선미 외래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조선대학교 김지현 교수와 남정초등학교 정일영교사가 주제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계명대학교 이선미 외래교수는 교육대학원에서 실시간 원격수업의 실제 사례를 발표하면서 수업에서 활용한 다양한 원격수업 매체와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온라인 국악 연주 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국악기를 배워 연주해보는 활동을 통해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록하며 한국음악에 대한 통합적 교수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학생들이 국악기인 소금의 기본 주법과 자세를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2015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을 소금으로 연주할 수 있는 국악실기 수업의 계획, 실행, 평가 과정을 학습의 과정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강의는 온라인 수업으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학교 LMS를 활용하여 강의 공지사항, 자료실, 과제 등 학습활동을 병행하였다.

이선미 교수가 실시한 온라인 원격 수업은 강의콘텐츠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수업 장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소금연주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면서 온라인 교수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 수업 참여 학생들의 소그룹 온라인 소금 합주를 실행하였다. 또한 소규모 소회의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팀워크 역량을 높이고록 하였으며,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한 서로 지켜야할 예절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였다. 기말과제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국악을 소금으로 연주하도록 하여 국악에 대한 지역적 특색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정일영 서울남정초등학교 교사는 온라인 실기 수업에서 강의 환경에 대한 개선문제 가운데 음색(tone)의 변화 현상과 수용 음량을 초과 시 노이즈(noise) 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 해결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합주 연주에서 일어나는 울림 현상과 시간 지연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조선대학교 김지현 교수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강의 콘텐츠 제작과 수업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과 원격 수업에서 학습자와의 소통이 대면수업과는 다르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수업에서 실기수업의 학습자간 격차를 조절하는 방법과 학습활동의 점검과 교수자와 학습자 원격학습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사회가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상호작용의 사회적 변화를 지난 1년 반 동안 겪어오면서 음악교육 현장에서도 주요한 음악교수학습 방법과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학습 방법들이 탐구되고 있다. 교육현장의 음악교육자들은 갑작스럽게 변화된 사회적 비대면, 대면, 혼합 교육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

을 찾아내기 위한 탐구를 이어가고 있다. 점차 비대면 원격 음악교육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며, 제 15회 콜로키움 발표와 토론 내용이 앞으로 음악교육 발전에 더 주요한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